

유란시아서

<< [제 171 편](#) | [부분](#) | [내용](#) | [제 173 편](#) >>

제 172 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다

172:0.1 (1878.1) **예수**와 사도들은 서기 30년 3월 31일, 금요일 오후에 4시가 조금 지나서 **베다니**에 다다랐다. **나사로**와 두 자매와 친구들은 그들을 기대하고 있었다. 너무 많은 사람이 **나사로**가 부활한 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려고 날마다 왔기 때문에, **예수**는 이웃에 어느 **시몬**이라는 신자의 집에 머무르도록 주선이 되었다는 통지를 받았는데, 이 사람은 **나사로**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 그 작은 마을의 촌장이었다.

172:0.2 (1878.2) 그날 저녁에, **예수**는 많은 방문객을 받았고, **베다니**와 **벳바게**의 서민들은 그를 환영하는 느낌이 들게 하려고 최선을 다했다. **산헤드린**의 사형 선포를 철저히 무시하고, 자신이 **유대인**의 임금이라 선포하려고 **예수**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고 술한 사람이 생각했어도, **베다니** 가족 —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 는 주가 그런 종류의 임금이 아니라는 것을 더 잘 깨달았다. 그들은 이것이 그가 **예루살렘**과 **베다니**를 마지막으로 찾아보는 것일지 모른다고 어렵פות이 느꼈다.

172:0.3 (1878.3) 주사제들은 **예수**가 **베다니**에서 묵는다는 정보를 받았지만, 친구들 사이에서 그를 체포하려 시도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했다. 그들은 **예수**가 계속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것을 기다리기로 작정했다. **예수**는 이 모든 것을 알았지만 차분하게 품위를 지켰다. 친구들은 그가 이보다 더 침착하고 유쾌한 것을 결코 본 적이 없었다. **산헤드린**이 온 **유대인**에게 그를 자기들의 손에 넘기라고 요구했을 때 그가 그다지 아랑곳하지 않은 것에 사도들조차 놀랐다. 주가 그날 밤에 주무시는 동안, 사도들은 둘씩 그를 지켰고, 여럿이 칼을 차고 있었다. 그들은 이튿날 아침 일찍 수백 명의 순례자 때문에 잠이 깨었는데, 이들은 안식일에도 **예수**와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켰던 **나사로**를 보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왔다.

1. 베다니에서 안식일을

172:1.1 (1878.4) **유대** 당국만 아니라 **유대** 바깥에서 온 순례자들은 모두 이렇게 물었다: “너는 어찌 생각하느냐? **예수**가 축제에 올라오겠느냐?” 그러므로 **예수**가 **베다니**에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기뻐했지만, 주사제와 **바리새인**들은 얼마큼 어리둥절했다. 그들은 **예수**를 관할 하에 두어서 기뻐지만, **예수**의 대담성에 조금 불안하였다. 그가 이전에 **베다니**를 방문했을 때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던 것, 또 **나사로**가 **예수**의 적들에게 큰 문제가 되고 있음을 기억했다.

172:1.2 (1878.5) 유월절 엿새 전, 안식일 다음 날 저녁에, 온 **베다니**와 **벳바게**는 **시몬**의 집에서 대중 연회(宴會)를 열어 **예수**가 도착한 것을 축하하는 데 참석하였다. 이 만찬은 **예수**와 **나사로** 두 사람에게 영예를

돌리려는 것이었고 **산헤드린**을 무시하고 베풀어졌다. **마르다**는 식사 대접을 지시했고, 동생 **마리아**는 여자가 대중 연회에 앉아 있는 것이 **유대인** 관습에 어긋났기 때문에 여자 구경꾼들 사이에 있었다. **산헤드린**의 관리들이 자리에 있었지만 **예수**의 친구들 한가운데서 그를 체포하기를 두려워했다.

172:1.3 (1879.1) **예수**의 이름은 옛날의 **여호수아**를 따서 지었는데, 그는 이 **여호수아**에 대하여 **시몬**과 이야기를 나누었고, 어떻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리고**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는가 이야기했다. **예리고**의 담이 무너졌다는 전설에 대하여 논평하면서 **예수**는 말했다: “나는 벽돌과 돌로 만든 그러한 담에 관심이 없으나, **아버지**가 모든 사람을 사랑함이 이렇게 전파되는 앞에서, 편견 · 독선 · 미움의 담을 무너뜨리고자 하노라.”

172:1.4 (1879.2) 사도들이 모두 드물게 차분한 것을 제외하고, 연회는 아주 명랑하고 정상으로 무르익었다. **예수**는 눈에 띄게 명랑했고, 식탁에 다가올 때까지 아이들과 함께 놀고 있었다.

172:1.5 (1879.3) 잔치가 끝날 때가 가까워지기까지 보통 아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때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여자 구경꾼들 무리 가운데서 앞으로 걸어 나왔다. 그리고 귀빈인 **예수**가 기댄 곳까지 가서, 아주 드물고 비싼 기름이 든, 큰 알라바스터 항아리를 열었다. 주의 머리에 기름을 부은 뒤에, **마리아**는 머리털을 풀어 헤치고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문지르면서 그 발에 향유를 붓기 시작했다. 온 집이 그 향유의 냄새로 가득하였고,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마리아**가 한 일에 놀랐다. **나사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 중얼거리고, 그렇게 비싼 향유를 이렇게 사용한다고 분개하는 빛을 보이자, **가롯 유다**는 **안드레**가 기대어 있는 곳으로

걸어와서 말했다: “어째서 이 향유를 팔고, 그 돈이 가난한 자들을 먹이는 데 기부되지 않았느냐? 그러한 낭비를 꾸짖으라고 너는 주께 말씀드려야 하느니라.”

172:1.6 (1879.4)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가 알고 무어라고 말했는가 들었기 때문에, **마리아**가 곁에서 무릎을 꿇은 동안 **예수**는 **마리아**의 머리에 손을 얹고, 다정스런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너희는 모두, 이 여자를 가만두라. 이 여자가 마음 속에 좋은 일을 한 줄 알면서, 어찌 이 일로 이 여자를 괴롭히느냐? 투덜거리며 이 향유를 팔아서 돈을 가난한 자에게 주었어야 한다 하는 너희에게 내가 이르노라. 너희에게 언제나 가난한 자들이 함께 있으니,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아무 때나 저희에게 봉사를 베풀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항상 있지 아니하리니, 내가 곧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 여인은 장례할 때 내 몸에 바르려고 이 향유를 오랫동안 저축해 왔고, 내 죽음을 예상하여 이렇게 기름 붓는 것을 좋게 여겼은즉, 이 여인이 그리하고 싶어 하는 것을 막지 못할지니라. 이 일을 하면서, 내가 죽는 것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는 것에 대하여 내가 일러 온 것을 믿음을 **마리아**가 이 행동으로 나타냈으니, 이 여인은 너희 모두를 꾸짖었도다. 오늘 밤에 행한 일로 이 여인을 나무라지 말지니라. 오히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가오는 시대에, 온 세상에 두루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은 어디에나 이 여인이 행한 일을 말하여 이 여인을 기억하리라.”

172:1.7 (1879.5) **가롯 유다**는 이것을 친히 책망을 받았다고 생각했고, 이 책망 때문에, 감정이 상한 것을 앙갚음하려고 마침내 마음먹었다. 여러 번 그러한 생각을 전에 의식하지 않고 품었지만, 이제 머리 속에서 솔직하게 의식하여 감히 그런 사악한 생각을 품었다. 이 향유 값이 한 사람이 1년 동안 버는 것에 해당하는 금액이었기 때문에 — 5천 명에게

빵을 마련하기에 넉넉했으므로 — 많은 다른 사람이 이런 그의 태도를 복돋아 주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를 사랑했고, 돌아가신 뒤에 그의 몸을 보존하려고 이 비싼 향유를 전에 마련했는데, 이는 그가 죽어야 한다고 그들에게 미리 경고했을 때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생각이 달라져서, 아직 살아 계시는 동안 주께 이 헌물을 드리기로 했다면, 그 여자가 그리하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

172:1.8 (1879.6) **나사로**와 **마르다**는 **마리아**가 백송향(白松香)이 담긴 이 향아리를 사려고 돈을 오랫동안 저축해 온 것을 알았고, 그런 문제에서 마음에 원하는 대로, **마리아**가 하는 것을 진심으로 인정했는데, 그들은 살림이 넉넉했고, 그런 헌물을 쉽사리 장만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172:1.9 (1880.1) 주사제들이 **예수**와 **나사로**를 위하여 **베다니**에서 이 만찬을 베풀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은 **나사로**를 어떻게 처분할까 자기들끼리 의논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대번에 **나사로**도 또한 죽어야 한다고 결정했다.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낸 **나사로**를 살려 둔다면, **예수**를 사형에 처하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으리라고 똑바로 결론을 내렸다.

2. 일요일 아침 사도들과 함께

172:2.1 (1880.2) 이 일요일 아침에, **시몬**의 아름다운 정원에서, 주는 열두 사도를 주위에 부르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준비로서 마지막 지시를 내렸다. **아버지**께 돌아가기 전에 그가 아마도 많은 연설을 하고 많은 교훈을 가르칠 것이라고 일렀지만, **예루살렘**에서 이 유월절에 머무르는 동안, 대중(大衆)을 상대로 어떤 일도 삼가라고 사도들에게 훈시했다. 가까이 남아 있고 “경계하고 기도하라”고 지시했다. 사도와

직계 추종자들의 다수가 그때도 몸에 칼을 감추고 다니는 것을 알았지만, 이 사실에 대하여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

172:2.2 (1880.3) 이날 아침의 가르침에는 **가버나움** 근처에서 사도로 세움받은 날부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준비하는 이날까지 그들이 베푼 봉사에 대한 간단한 검토가 포함되었다. 사도들은 잠자코 귀를 기울였고, 아무 말도 묻지 않았다.

172:2.3 (1880.4) 그날 아침 일찍, **다윗 세베대**는 **펠라** 야영지의 장비를 팔아서 얻은 자금을 **유다**에게 넘겨주었고, **유다**는 다시 이 돈의 반 이상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비상시를 예상하여 보관하려고 그들을 청한 주인 **시몬**의 손에 맡겼다.

172:2.4 (1880.5) 사도들과 회의를 가진 뒤에 **예수**는 **나사로**와 이야기를 나누었고, 복수심에 불탄 **산헤드린**에게 목숨 희생하는 일을 피하라고 그에게 지시했다. 이 훈계에 복종하여, 며칠 뒤에 **나사로**는 **필라델피아**로 피신했는데, 그때 **산헤드린**의 관리들이 그를 잡으려고 사람들을 보냈다.

172:2.5 (1880.6) 어떤 면에서, **예수**의 추종자들은 모두 닥쳐오는 위기를 느꼈지만, 주가 드물게 명랑하고 뛰어나게 좋은 유머를 보였기 때문에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충분히 깨닫지 못하게 되었다.

3. 예루살렘을 향하여 떠나다

172:3.1 (1880.7) **베다니**는 성전에서 약 3.2킬로미터 되었고, **예수**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떠나려고 준비가 된 것은 그 일요일 오후 1시 반이었다. 그는 **베다니**와 거기 있는 소박한 사람들을 깊이 사랑하는 감정을 간직했다. **나사렛**과 **가버나움**과 **예루살렘**은 그를 물리쳤지만,

베다니는 그를 받아들이고 그의 인품을 믿었다. 그리고 이 작은 마을에는 거의 모든 어른과 아이가 믿는 사람이었고, 그는 땅에서 자신 수여에서 가장 막강한 일, **나사로** 살리는 일을 여기서 행하기를 택했다. **나사로**를 살린 것은 마을 사람들이 믿을까 싶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이미 믿었기 때문이다.

172:3.2 (1880.8) 아침 내내 **예수**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하여 생각했다. 지금까지 그가 **메시아**라는 대중의 모든 주장을 억제하려고 언제나 애써 왔지만, 이제는 사정이 달랐다. 그는 육체를 입은 생애의 끝에 다가가고 있었고, **산헤드린**은 이미 그가 죽어야 한다고 선포했다. 제자들이 자유롭게 느낌을 표현하도록 놓아둔다고 해서 아무런 해로운 일이 생길 수 없었고, 그가 정식으로 대중 앞에 떳떳이 도시로 들어가기를 택한다면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었다.

172:3.3 (1881.1) 그는 사람들의 인기를 얻으려는 마지막 노력으로서, 또는 권력의 마지막 쟁취로서, **예루살렘**으로 대중이 보는 가운데 들어가려고 결심하지 않았다. 전적으로 제자와 사도들의 인간적 열망을 채우려고 이렇게 하지도 않았다. 환상에 빠진 몽상가의 헛된 꿈을 **예수**는 전혀 품지 않았다. 그는 이 방문의 결과가 어떠할 것인가 잘 알았다.

172:3.4 (1881.2) **예루살렘**으로 대중이 보는 가운데 들어가기로 작정하고 나서, 주는 그러한 결심을 실행할 적당한 방법을 선택할 필요성에 부딪쳤다. 얼마큼 모순되는 술한 예언, 이른바 **메시아** 예언을 모두 생각해 보았지만, 그가 따르기가 조금이라도 적당한 것이 꼭 하나 있는 듯했다. 이 예언하는 말씀의 대부분은 임금, **다윗**의 아들이자 후계자, 온 **이스라엘**을 외국인의 지배를 받는 멍에에서 현세에 구원할 자, 용감하고 공격적인 사람을 묘사했다. 그러나 **메시아** 사명의 영적 개념을 더 지지했던 사람들이 때때로 **메시아**와 연결했던 성서 구절이

하나 있었는데, **예수**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계획을 위한 지침으로 같은 맥락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구절은 **스가랴**에서 발견되는데 이렇게 적혀 있다: “크게 기뻐하라, 아 시온의 딸아. 외치라, 아 **예루살렘**의 딸아. 보라, 네 임금이 너에게 오도다. 그는 공정하고 구원을 가져오도다. 비천한 자로서 나귀를 타고 오시니, 새끼, 곧 나귀의 새끼라.”

172:3.5 (1881.3) 전쟁하는 임금은 반드시 말을 타고 도시에 들어갔다. 평화와 우정의 사명으로 가는 임금은 반드시 나귀를 타고 들어갔다. **예수**는 말 탄 사람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싶지 않았지만, 나귀를 탄 **사람의 아들**로서 평화롭게, 좋은 뜻을 가지고 기꺼이 들어갈 생각이 있었다.

172:3.6 (1881.4) **예수**는 그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그 나라는 순수하게 영적 문제라는 것을 직접 가르침으로 사도들에게 강조하려고 오랫동안 애썼지만, 이 노력에 성공하지 못했다. 쉽게 친히 가르쳐 실패한 것을 이제 상징에 호소하여 성취하기를 시도하려고 한다. 따라서, 점심 식사 바로 뒤에, **예수**는 **베드로**와 **요한**을 불렀고, 큰길에서 조금 떨어져 있고 **베다니**의 북서쪽에 가까운 거리에 있는 이웃 마을 **벳바게**로 가라고 지시한 뒤에, 말씀을 이었다: “**벳바게**로 가서, 십자로에 이르면, 너희는 거기 묶여 있는 나귀 새끼를 발견하리라. 그 나귀를 풀어서 이리로 가져오라. 어째서 너희가 이렇게 하느냐 누구라도 묻거든, 다만 ‘주께서 나귀가 필요하니라’ 말하라.” 주가 지시한 대로 두 사도가 **벳바게**로 들어갔을 때, 그들은 트인 거리에, 구석에 있는 어느 집 근처에, 어미 가까이 매여 있는 나귀 새끼를 발견했다. **베드로**가 그 나귀 새끼를 풀기 시작하자, 주인이 다가와서 어째서 그가 이렇게 하는가 물었고, **예수**가 지시한 대로

베드로가 대답하자 그 사람은 말했다: “너희의 주가 **갈릴리**에서 온 **예수**라면, 그에게 나귀 새끼를 가지고 가라.” 그래서 그들은 그 나귀 새끼를 끌고 돌아왔다.

172:3.7 (1881.5) 이때가 되자 순례자 수백 명이 **예수**와 사도들의 둘레에 모여 있었다. 늦은 아침부터 유월절에 가는 길에 지나는 방문자들이 머물러 있었다. 그동안에, **다윗 세베대**와 옛 사자였던 동료들 가운데 몇 사람은 자청하여 **예루살렘**으로 서둘러 내려갔고, 거기서 **나사렛 예수**가 개선(凱旋) 행진으로 도시에 들어간다는 보고를 성전 주위에 방문하던 순례자 무리 사이에 효과 있게 퍼뜨렸다. 따라서 이 방문자 수천 명이, 입에 오르내리던 이 선지자요 이적을 행하는 이, 더러는 **메시아**라고 믿은 사람을 맞이하려고 떼를 지어 나왔다. **예루살렘**에서 바깥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군중은, 도시로 들어가는 **예수**와 군중이 **올리브** 산 꼭대기를 넘어서 도시로 내려가기 시작한 바로 뒤에 그들을 만났다.

172:3.8 (1882.1) 행렬이 **베다니**를 출발하자, 축제에 들뜬 제자, 신자, 방문하는 순례자로 이루어진 군중이 크게 흥분하였고, 순례자들 가운데 다수가 **갈릴리**와 **페레아**에서 왔다. 그들이 출발하기 바로 전에, 최초의 여인단의 열두 여인이 동료들을 더러 데리고 그 장면에 이르렀고, 그 진기한 행렬이 도시를 향하여 즐거워하며 계속 움직이자 거기에 합세했다.

172:3.9 (1882.2) 출발하기 전에, **알패오** 쌍둥이는 자신들의 외투를 나귀 위에 올려놓고 주가 올라타는 동안 주를 붙들었다. 그 행렬이 **올리브** 산 꼭대기를 향하여 움직이자, 임금의 아들, 약속된 **메시아**를 태운 나귀를 위하여 영예로운 깔개를 만들려고, 축제 기분에 싸인 군중이 땅에 옷을 벗어 던지고 가까이 있는 나무에서 가지들을 꺾어 왔다. 즐거운 군중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계속 움직이는 동안, 그들은 시편을

노래하기 시작했다, 아니 차라리 한 목소리로 외치기 시작했다,
“**다윗**의 아들에게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는 자는 복이 있도다.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나라는 복이 있을지어다.”

172:3.10 (1882.3) 그들이 따라 움직이자 **예수**는 명랑하고 즐거웠으며,
올리브 산 꼭대기에 이르자, 거기서 도시와 성전의 탑들이 한 눈에
들어왔다. 거기서 주는 행렬을 멈추었고, 그들이 **예수**가 눈물 흘리는
것을 지켜보는 동안, 큰 침묵이 모두를 덮었다. 도시에서 그를
환영하려고 쏟아져 나오는 방대한 군중을 내려다보며, 주는 크게
감동하고 눈물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아 **예루살렘**아, 너라도, 적어도
너의 한창 때, 무엇이 너의 평화시에 속하고 무엇을 아주 거저 가질 수
있었는가 네가 알기만 했더라면! 그러나 이제 이 영광이 바야흐로 네
눈에 보이지 않게 감춰지려 하는구나. 너는 이제 평화의 **아들**을
물리치고 구원의 복음에 등을 돌리려 하는구나. 네 둘레에 도랑을 파고
사방(四方)에서 너를 포위할 시절이 곧 너에게 닥치리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기까지 저희가 너를 남김없이 파괴할지니라. 신이
방문하는 시절을 네가 알지 못하였으니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닥칠지니라. 너는 바야흐로 **하나님**의 선물을 물리치려 해도, 모든
사람이 너를 물리치리라.”

172:3.11 (1882.4) 그가 말씀을 마치고 나자, 그들은 **올리브**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종려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를 외치며, 달리 한껏 기뻐하고
즐거운 기분을 나누는 무리, **예루살렘**에서 나온 방문자들의 무리와
금방 합세하였다. 주는 이 군중이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그들을
맞이하도록 계획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한 일이었다.
극적인 아무 일도 그는 결코 미리 꾸미지 않았다.

172:3.12 (1882.5) 주를 환영하려고 쏟아져 나온 군중과 아울러, 또한 술한
바리새인과 다른 적들이 왔다. 민중의 환호가 갑자기 생각지 않게 터진

것에 너무나 불안해져서, 그들은 체포하는 행동이 민중이 터놓고 폭동을 터뜨리게 만들지 않을까 저어하여 **예수**를 체포하기가 두려웠다. 그들은 큰 방문자 무리가 어떤 태도를 가질까 크게 두려워했는데, 이들은 전에 **예수**에 대하여 많이 소문을 들었고, 이들 가운데 다수가 **예수**를 믿었다.

172:3.13 (1882.6)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자, 군중은 점점 더 시위하는 모습이었고, 너무 지나쳐서 **바리새**인들 가운데 더러는 **예수** 옆에 다가와서 말했다, “선생이여, 당신은 제자들을 꾸짖고 저희에게 더 점잖게 행동하라고 타일러야 하나이다.” **예수**는 대답했다: “주사제들이 물리친 평화의 **아들**을 이 아이들이 환영하는 것이 마땅할 따름이라. 길가에 있는 이 돌들이 저희 대신에 외치지 않을까 하나니, 저희를 멈추는 것이 소용 없으리라.”

172:3.14 (1882.7) **바리새**인들은 황급히 행렬을 앞질러 가서 **산헤드린**으로 다시 돌아갔다. **산헤드린**은 그때 성전에서 심의하는 중이었고 그들은 동료들에게 보고했다: “보라, 우리가 하는 일은 모두 아무 소용이 없도다. 우리는 이 **갈릴리** 사람 때문에 엉망진창이 되었고도다. 사람들은 저에게 미쳤는지라. 우리가 이 무지한 자들을 멈추지 아니하면, 온 세상이 저를 뒤쫓아 가리라.”

172:3.15 (1883.1) 이렇게 겉으로 자연스럽게 군중이 열광의 도가니에 빠지게 된 것에 붙여야 할 아무런 깊은 의미가 정말로 없었다. 이러한 환영은 비록 즐겁고 진지하기는 했어도 흥겨운 이 군중의 마음 속에 진정하거나 뿌리 깊은 어떤 확신이 있음을 가리키지 않았다. 바로 이 군중은 이 주의 후반(後半)에, **산헤드린**이 일단 **예수**를 적대하여 굳고 단호한 태도를 취하자, 그리고 그들이 환상에서 깨어났을 때 — 오랫동안 간직했던 기대에 따라서 **예수**가 하늘나라를 세우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 똑같이 기쁘게 **예수**를 재빨리 거부했다.

172:3.16 (1883.2) 그러나 온 도시가 힘차게 술렁거렸고, 그래서 사람마다 한 목소리로 물었다, “이 사람은 누구뇨?” 군중은 응답했다, “**갈릴리 선지자, 나사렛 예수라.**”

4. 성전 둘레를 방문하다

172:4.1 (1883.3) **알패오** 쌍둥이가 나귀를 주인에게 돌려주는 동안에, **예수**와 열 사도는 가까운 동료들과 따로 떨어져, 성전 둘레를 거닐며, 유월절을 위한 준비를 구경하였다. **산헤드린**이 사람들을 크게 두려워했기 때문에, **예수**에게 손대려는 아무런 시도도 없었고, 이것이 결국은 **예수**가 군중으로 하여금 이렇게 그를 환호하도록 버려둔 이유 중에 하나였다. 이것이 도시에 들어가고 나서 **예수**가 즉시 붙잡히는 것을 막는 데 효과적일 수 있었던 유일한 인간적 과정이었다는 것을 사도들은 조금도 깨닫지 못했다. 주는 유월절에 온 수만의 방문자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높고 낮은 주민에게 복음을 들을 기회, 그들이 원한다면 평화의 **아들**을 받아드릴 이 마지막 기회를 한번 더 주고 싶었다.

172:4.2 (1883.4) 이제, 저녁이 다가오자, 군중은 먹을 것을 찾으러 갔고, **예수**와 직계 추종자들만 남았다. 얼마나 이상한 날이었는가! 사도들은 생각이 깊었지만 말이 없었다. **예수**와 관계를 가졌던 여러 해 동안, 그런 날을 구경한 적이 없었다. 한 순간 그들은 성전 금고 옆에 앉아서, 사람들이 헌금 떨어뜨리는 것을 구경했다: 부자들은 돈 받는 상자 속에 많이 넣었고, 모두가 가진 재산의 한도에 따라서 무엇인가 냈다. 마침내, 제대로 옷을 걸치지 못한 어느 가난한 과부가 왔고, 그 여자가 (작은 동전) 두 잎을 나팔 속으로 넣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때 사도들이

과부를 주목하게 하며 **예수**는 말했다: “너희가 방금 본 것을 잘 주목하여라. 이 가난한 과부는 모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던졌으니, 이 모든 다른 사람은 남는 데서 하찮은 것을 얼마큼 헌금으로 던졌거니와 이 가난한 여인은 비록 빈궁한데도 가진 것을 모두, 아니 생활에 쓸 것까지도 내놓았느니라.”

172:4.3 (1883.5) 저녁이 가까워지자, 그들은 말없이 성전 마당 근처에 이리저리 걸었고, 이 낮익은 장면들을 다시 한번 둘러본 뒤에, 더 일찍 있었던 방문도 제외하지 않고 이전의 여러 방문과 관련된 느낌을 회상하며, **예수**는 말했다: “**베다니**로 올라가서 쉬자.”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예수**는 **시몬**의 집으로 갔고, 한편 다른 사도들은 **베다니**와 **벳바게**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묵었다.

5. 사도들의 태도

172:5.1 (1883.6) 이 일요일 저녁에, 그들이 **베다니**로 돌아가는 동안 **예수**는 사도들 앞에서 걸었다. 그들이 **시몬**의 집에 이른 뒤에 헤어질 때까지, 말 한 마디도 떨어지지 않았다. 어떤 열두 사람도, 이 하늘나라 대사(大使)들의 정신과 혼을 통하여 지금 솟구치고 있는 것처럼 다양하고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을 일찍이 느낀 적이 없었다. 이 억센 **갈릴리** 사람들은 어리둥절하고 당황하였다. 다음에 무엇을 기대할지 몰랐다. 너무 놀라서 그다지 두려운 느낌이 들지 않았다. 주가 다음 날 무엇을 계획하는가 아무것도 몰랐고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들은 숙소로 돌아갔지만, 쌍둥이를 제외하고, 별로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러나 **시몬**의 집에서, 무기(武器)를 가지고 **예수**를 지키지는 않았다.

172:5.2 (1884.1) **안드레**는 완전히 어리둥절했고 거의 갈피를 잡지 못했다. 그는 대중의 환호가 터진 것을 평가하려고 진지하게 애쓰지 않은 유일한 사도였다. 사도단의 우두머리로서 자기 책임을 생각하는 데 너무 몰두해서, 군중이 크게 호산나를 외친 것에 무슨 의미나 중요성이 있는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안드레**는 동료들 가운데 몇 사람을 지켜보느라고 바빴고, 그들이, 특히 **베드로** · **야고보** · **요한**과 열심당원 **시몬**이, 흥분한 동안에 감정을 못 이길까 두려워했다. 이날 하루 종일, 그리고 뒤이은 며칠 동안, **안드레**는 심각한 의심이 들었지만, 사도 동료들에게 이러한 걱정거리를 전혀 털어놓지 않았다. 그는 열둘 가운데 몇 사람이 칼로 무장한 것을 알고 있었고 그들의 태도가 걱정되었지만, 바로 아우 **베드로**가 그런 무기를 지니고 있는 것을 몰랐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행렬은 **안드레**에게 비교적 깊이 않은 인상을 주었다. 자기 책임에 너무 바빠서, 그는 달리 영향을 받을 수 없었다.

172:5.3 (1884.2) **시몬 베드로**는 민중이 이처럼 열광하는 것을 보고 처음에는 거의 날 듯한 기분이었지만, 그들이 그날 밤 **베다니**로 돌아올 때가 되자, 그는 어지간히 정신이 들었다. **베드로**는 다만 주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지 알아차릴 수 없었다. 열광의 파도에 뒤이어, **예수**가 어떤 종류의 발표를 하지 않아서 몹시 실망했다. **베드로**는 그들이 성전에 도착했을 때, 어째서 **예수**가 군중에게 말씀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적어도 사도들 중 한 사람에게 군중에게 연설하라고 허락하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베드로**는 위대한 설교자였고, 그렇게 술술 받아들이고 열광하는 큰 청중을 헛되이 보내는 것을 보고 아까워했다. 군중에게 성전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그는 하늘나라 복음을 무척 전파하고 싶어 했을 것이다. 그러나 주는 이 유월절 주간에 **예루살렘**에 있는 동안 전혀 가르치거나 설교해서는 안 된다고

그들에게 특별히 당부했다. 도시 안으로 들어가는 이 볼 만한 행렬이 보인 반응은 **시몬 베드로**에게 비참했다. 밤이 되자 그는 제 정신이 들었고 말할 수 없이 슬펐다.

172:5.4 (1884.3) **야고보 세베대**에게, 이 일요일은 어리둥절하고 깊은 혼란에 빠진 날이었다. 그는 진행되는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알아차릴 수 없었다. 주가 무슨 목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사납게 환호하도록 버려두고 나서, 그들이 성전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에게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 행렬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리브** 산을 내려가는 동안에, 특히 그들이 주를 환영하려고 쏟아져 나온 수천의 순례자와 마주쳤을 때, **야고보**는 구경한 것에 가슴이 뿌듯함과 만족이 엇갈리는 감정 때문에, 또 그들이 성전에 다다랐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는 깊은 두려운 느낌 때문에, 마음이 몹시 산란하였다. 다음에 **예수**가 나귀에서 내려서, 느긋하게 성전 마당 둘레를 계속 거닐었을 때, 그는 풀이 죽었고 실망에 빠졌다. 하늘나라를 선포할 그러한 대단한 기회를 던져 버리는 이유를 **야고보**는 이해할 수 없었다. 밤이 되자 그의 정신은 슬프고 끔찍한 불안 속에 빠져 있었다.

172:5.5 (1884.4) **요한 세베대**는 어쩌서 **예수**가 이렇게 했는가 얼마큼 가깝게 이해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적어도 이렇게 이른바 승리의 **예루살렘** 입성이 무슨 영적 의미가 있는가 얼마큼 깨달았다. 군중이 성전을 향하여 계속 움직임에 따라서, 그리고 거기 주가 나귀 새끼에 걸터앉아 있는 것을 보는 동안, **요한**은 **예수**가 한때 성서의 구절, **스가랴**의 말씀을 인용한 것을 기억했는데, 이것은 **메시아**가 평화의 사람으로 오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을 묘사했다. 이 구절을 머리 속에서 이모저모 따져보자, **요한**은 이 일요일 오후의 구경거리가 무슨 의미를 상징하는가 비로소 알아차렸다. 적어도 그는

이 구절의 뜻을 넉넉히 깨달았고, 이것은 그로 하여금 그 사건을 얼마큼 즐기고, 겉보기에 목적 없이 승리의 행진이 끝난 것을 보고 지나치게 우울해지지 않게 하였다. **요한**은 태어날 때부터 상징으로 생각하고 느끼는 성향이 있는 종류의 머리를 가졌다.

172:5.6 (1885.1) **빌립**은 갑자기, 저절로 군중이 열광한 것에 온통 들떠 있었다. **올리브** 산에서 내려가는 길에, 이 모든 시위가 도대체 무슨 일인가 어떤 정돈된 개념에 도달할 만큼 충분히 생각을 가다듬을 수 없었다. 주가 영예를 받았기 때문에, 그는 어떤 면에서 그 연출을 기쁘게 보았다. 그들이 성전에 이를 때가 되자, 그는 **예수**가 아마도 그에게 군중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요청할까 하는 생각에 움찔했고, 그래서 군중으로부터 여유 있게 돌아서는 **예수**의 행동이 대다수의 사도들에게 그토록 쓰라린 실망을 주었지만, **빌립**에게 크게 안심이 되었다. 군중은 때때로 열두 사도의 집사에게 큰 시련이었다. 군중의 물질적 필요에 관하여 이런 개인적 걱정을 덜고 난 뒤에, **빌립**은 군중을 가르치려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베드로**와 함께 실망을 표현했다. 그날 밤에 **빌립**은 이 체험에 대하여 곰곰이 생각하게 되었고, 하늘나라 관념 전부를 의심하는 유혹이 들었다. 이 모든 일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솔직하게 궁금했지만, 의심을 아무에게도 나타내지 않았는데, **예수**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는 개인적으로 주를 크게 신뢰하였다.

172:5.7 (1885.2) 상징과 예언 같은 모습을 제쳐놓고, **나다니엘**은 주가 어째서 유월절의 순례자들로부터 일반적 지지를 구했는가 가장 가깝게 이해하였다. 그들이 성전에 이르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시위(示威)하며 들어가지 않고는 주제님께 도시로 들어가는 순간, **예수**가 **산헤드린**의 관리들에게 체포되어 감옥에 던져졌으리라는 것을

생각해서 알아냈다. 그러므로 **예수**가 도시의 담 안으로 일단 들어가고,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를 즉시 체포하는 일을 삼가도록 이렇게 그들에게 강력하게 감명을 주고 나서, 주가 즐거워하는 군중을 더 이상 이용하지 않은 것을 보고 **나다니엘**은 조금도 놀라지 않았다. 이런 방법으로 주가 도시에 들어간 참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나다니엘**은 자연히 더 차분히 따라갔고, 다른 사도들보다 **예수**의 나중 행동에 그다지 마음이 흔들리거나 실망하지 않았다. **나다니엘**은 까다로운 상황을 다루는 데 **예수**가 지혜롭고 영리할 뿐 아니라 사람들을 이해하는 것을 크게 신뢰했다.

172:5.8 (1885.3) **마태**는 처음에 이 구경거리의 진행을 보고 어쩔 줄을 몰랐다. **예루살렘**의 임금이 구원을 가져오고 나귀 새끼를 타고서 왔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기뻐하는 것을 선지자가 언급하는 **스가랴**의 구절을 또한 상기할 때까지, 그는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깨닫지 못했다. 그 행렬이 도시 방향으로 움직이고, 다음에 성전에 가까워지자, **마태**는 환희에 빠졌다. 소리지르는 이 군중의 선두에 서서 주가 성전에 도착했을 때, 무슨 놀라운 일이 일어나리라고 확신했다. **바리새인**들 가운데 하나가, “모두 보라, 누가 여기에 오는가, **유대인**의 임금이 나귀를 탔구나!”하며 **예수**를 비웃었을 때, **마태**는 겨우 크게 자제하여 가까스로 그에게 손을 대지 않았다. 그날 저녁에 **베다니**로 돌아가는 길에 열두 사도 중에서 아무도 그보다 더 우울하지 않았다. **시몬 베드로**와 열심당원 **시몬** 다음으로, 그는 신경이 아주 날카롭게 곤두섰고, 밤이 되자 지친 상태에 빠졌다. 그러나 아침이 되자 **마태**는 훨씬 즐거워졌다. 결국 그는 지고도 즐거울 줄 아는 사람이었다.

172:5.9 (1886.1) **토마스**는 모두 열두 사도 가운데서 가장 어리둥절하고 당황한 사람이었다. 대부분의 시간에 그냥 따라다녔고, 그 광경을

보면서 주가 그러한 특이한 시위에 참가한 동기가 도대체 무엇일까
정직하게 의문을 품었다. 가슴 속 깊이 그 연출 전체가, 명백히
어리석지는 않더라도, 조금 유치하다고 여겼다. 이와 같은 어떤 일도
예수가 하신 것을 본 적이 없었고, 이 일요일 오후에 **예수**의 이상한
행동을 설명하지 못하여 그는 어리둥절했다. 그들이 성전에 이를 때가
되어서, **토마스**는 이 민중 시위의 목적은 **산헤드린**을 깜짝 놀라게
해서, 그들이 감히 주를 즉시 체포하려 하지 않도록 하는 것임을
추측했다. **베다니**로 돌아가는 길에, **토마스**는 생각이 많았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잠잘 때가 되어 **예루살렘**으로 시끌벅적한 입성을
연출한 **예수**의 영리함이 얼마큼 유머 있게 호소하기 시작했고, 그는 이
반응 때문에 기분이 많이 즐거워졌다.

172:5.10 (1886.2) 열심당원 **시몬**에게 이 일요일은 멋진 날로 시작되었다.
다음 며칠 동안 **예루살렘**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환상을 보았고,
그 점에서 그는 옳았다. 그러나 이 **시몬**은 **예수**가 **다윗**의 왕좌에 앉고,
유대인들이 새로이 나라를 통치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꿈꾸었다.
하늘나라가 선포되자마자 민족주의자들이 행동에 나서고, 바로 그는
새 나라에서 모이는 군대의 최고 지휘를 맡는 것을 보았다. **올리브**
산으로 내려가는 길에, 그날 해가 지기 전에 **산헤드린**과 그 동조자들이
다 죽는 것을 환상으로 보기까지 했다. 무슨 큰 일이 일어나려 한다고
정말로 믿었다. 그는 군중 전체에서 가장 시끄러운 사람이었다. 그날
오후 5시가 되자, 그는 말이 없고 움츠러들고 환상에서 깨어난
사도였다. 적어도 주가 부활하고 시간이 오래 지나기까지, 그는 이날의
충격을 받은 결과로 그에게 덮친 우울함에서 결코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

172:5.11 (1886.3) **알패오** 쌍둥이에게 이날은 완벽한 날이었다. 끝까지
하루를 정말로 즐겼고, 성전 근처에서 주가 조용히 둘러보는 동안에

옆에 없었기 때문에, 민중 봉기의 시시한 끝을 상당히 피했다. 그날 저녁에 **베다니**로 돌아왔을 때, 풀이 죽은 사도들의 행동을 그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쌍둥이가 기억하기로, 이날이 언제나 땅에서 하늘에 가장 가까운 날이었다. 이날은 사도로서 그들의 생애 전체에서 흐뭇한 절정이었다. 이 일요일 오후의 가슴 뿌듯했던 기억은 파란 많은 이 주간의 비극 모두를 치르고, 십자가 처형이 있던 바로 그 시간까지 그들을 버티게 했다. 그것은 쌍둥이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어울리는, 임금의 입성(入城)이었고, 그들은 구경거리 전부를 순간마다 즐겼다. 그들은 본 것을 모두 완전히 좋게 여겼고, 오랫동안 그 기억을 간직했다.

172:5.12 (1886.4) 모든 사도 가운데, **가롯 유다**는 이 행렬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것에 가장 나쁘게 영향을 받았다. **시몬**의 집에서 잔치할 때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것과 관련하여 그 전날 주의 꾸지람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머리는 불만으로 부글부글 끓고 있었다. **유다**는 그 광경 전부에 속이 메스꺼웠다. 그에게 이것은 정말로 우스꽝스럽지는 않더라도 유치하게 보였다. 복수심에 찬 이 사도가 이 일요일 오후의 행렬을 보았을 때, 그에게 **예수**는 임금이기보다 어릿광대와 비슷하게 보였다. 그는 마음 속에서 그 연출 전체를 분개하였다. 그는 **그리스인**과 **로마인**의 관점을 가졌고, 이들은 나귀나 나귀 새끼를 타겠다고 찬성할 사람은 누구든지 깔보았다. 승리의 행렬이 도시로 들어갔을 무렵에, **유다**는 그러한 하늘나라 관념 전부를 버리기로 거의 작정하였다. 하늘나라를 세우려는 모든 그러한 어처구니없는 시도를 그만두기로 거의 결심하였다. 다음에 **나사로**의 부활과 많은 다른 일을 생각했고, 적어도 하루 더, 열둘과 함께 계속 남아 있기로 마음먹었다. 게다가 그는 돈 가방을 지녔고 사도의 자금을 몸에 지니고서, 버리고 달아나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날 밤에 **베다니**로 돌아가는 길에 그의

행동은 이상하게 보이지 않았는데, 사도들이 다 똑같이 풀이 죽었고 말이 없었기 때문이다.

172:5.13 (1887.1) **유다**는 **사두개인** 친구들의 조롱에 엄청나게 영향을 받았다. **예수**가 도시의 대문에 막 이르자 일어난 어떤 작은 사건만큼, 어떤 한 가지 다른 요인도 그에게 그렇게 강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어떤 저명한 **사두개인**이 (**유다** 집안의 한 친구) 즐겁게 비웃는 생각으로 그에게 달려가서 등을 툭툭 두드리며 말했다: “내 좋은 친구여, 어찌하여 그리 근심하는 얼굴인가. 이 **나사렛 예수**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대문들을 지날 때 우리가 그를 **유대인**의 임금이라 갈채하는 동안, 기운을 내고 우리 모두와 합세하게나.” **유다**는 박해를 받는다고 움츠러든 적이 없었지만, 이 따위의 비웃음은 견딜 수 없었다. 오래 간직했던 복수의 감정과 함께, 웃음거리가 될까 하는 이 치명적 두려움, 주와 동료 사도들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이 끔찍하고 두려운 느낌이 이제 섞였다. 마음 속에서, 사도로 세움받은 이 하늘나라 대사는 이미 배반자였다. 주와 드러내놓고 갈라지는 어떤 그럴듯한 핑계를 찾는 일이 남았을 뿐이다.